

222  
00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연간보고서

222  
012



2021 [www.kpil.org](http://www.kpil.org)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18년간 공감은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홈리스, 성소수자,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 Contents

2021 연간보고서

인사말 4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공감이  
걸어온 길 56

여는 글 5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공감  
살림살이 58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2021  
공감 목소리 60

공감  
마당 6

공감  
활동 19

함께하는  
사람들 64

인권법캠프 6

여성인권 20

기부회원 64

자원활동 8

장애인권 25

이사회 68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10

빈곤/복지 30

구성원 70

이주민인권 33

취약노동 37

사진으로  
보는  
공감 12

성소수자 42

공감  
나눔밥상 72

공익법 일반 46

국제인권 48

공익법 교육/중개 52

유튜브  
채널소개 73

##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라!

작년 10월 22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 지면에서 기부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8년 전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며,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사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유, 평등, 연대를 기본가치로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기에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과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공감의 이러한 활동들은 기부회원들의 기부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부를 해주신 기부회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기부 여건의 변화로 기부금 수입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감의 조직과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부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대학 동기로부터 공감의 활동에 공감하여 기부하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10년에 한번 정도 대학 동기 모임에서 보는 동기생이었는데 기부계좌를 알려주자 바로 적지 않은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동창을 응원하는 차원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라.” (전도서 3장 12절)

공감의 활동을 신뢰하여 기부해주시는 일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공감은 앞으로 기부회원님들의 기부가 더욱더 의미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차별금지)을 위해, 난민과 이주민, 노숙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의 인권 과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시대에 기후변화로 겪게 될 구조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감, 발전하는 공감을 위해 지원해주시는 기부회원님들, 2022년 한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인권을 위한 공감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공감의 기부회원의 수도 처음으로 감소세가 된 해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감의 새로운 기부회원이 되어주신 분들, 오랫동안 기부를 지속하고 계신 분들, 잠시 기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거나 기부금을 증액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공감은 2021년에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공감은 여성, 장애인, 불안정 노동자, 성소수자, 난민과 이주민, 홈리스 등을 위한 법률지원과 제도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래 묵은 문제였던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문제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다시 대두되어 긴밀하게 대응 활동을 벌였고,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이주여성들의 입국과 체류과정에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소송과 입법운동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감 구성원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공감 창립부터 함께 하였던 염형국 변호사와 여성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던 차혜령 변호사가 작년에 퇴사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구성원으로 강은희 변호사가 노동 영역팀에 새로 결합하여, 드라마제작현장에서 불법근로계약 실태 고발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갔고, 김지혜 변호사가 여성인권팀으로 새롭게 결합하였습니다.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고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는 만큼 공감 안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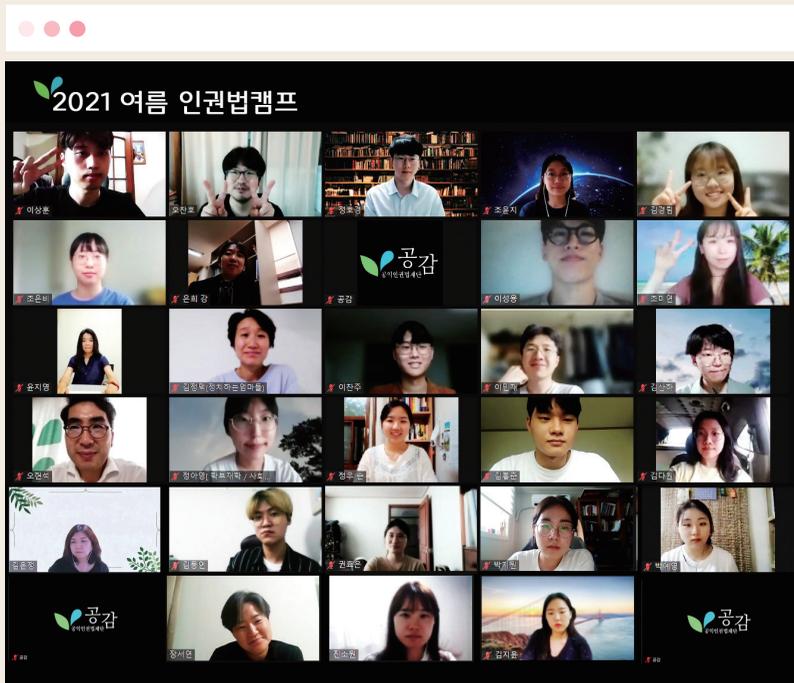
2022년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인권을 위한 공감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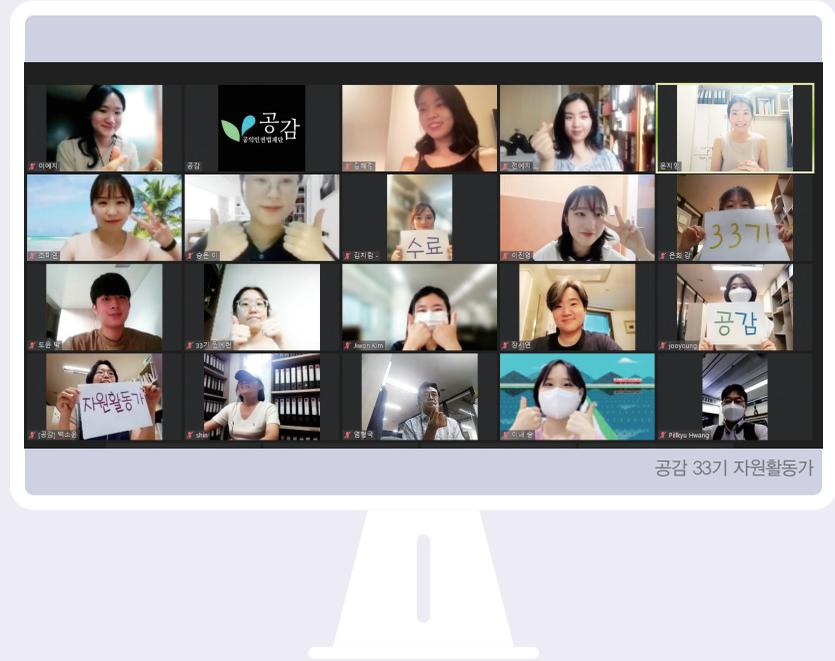
# 인권법 캠프

공감은 매년 여름과 겨울,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법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과 7월에 각 45명씩 참석하여  
함께 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감 인권법캠프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  
마당  
—  
소통과  
참여





공감 33기 자원활동가

## 자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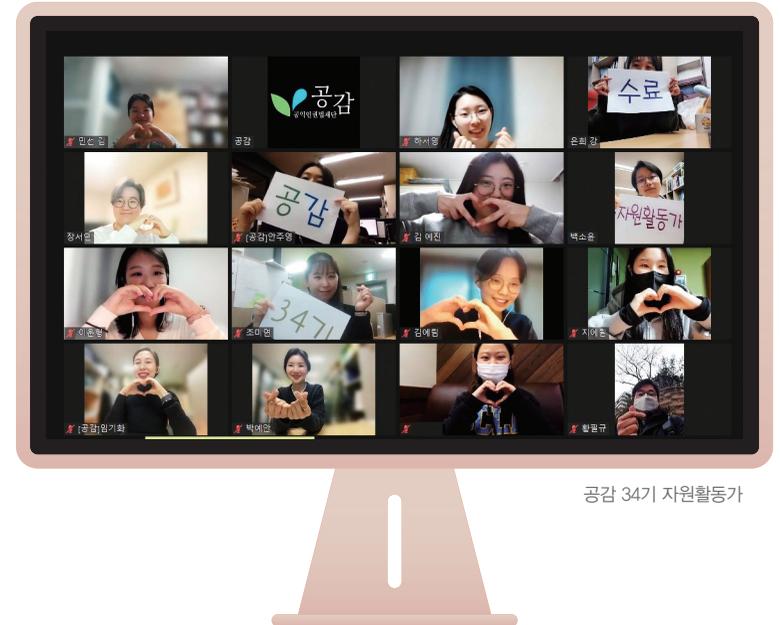
공감은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법률 문헌리서치와 홍보·운영으로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공감의 활동을 채워갑니다.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들이 나눠준 땀과 열정으로 공감은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공감 33기 자원활동가

권예현 심예원  
 김지원 이승은  
 김혜정 이에지  
 박도윤 이진영  
 송이내 전예지  
 정환엽

### 공감 34기 자원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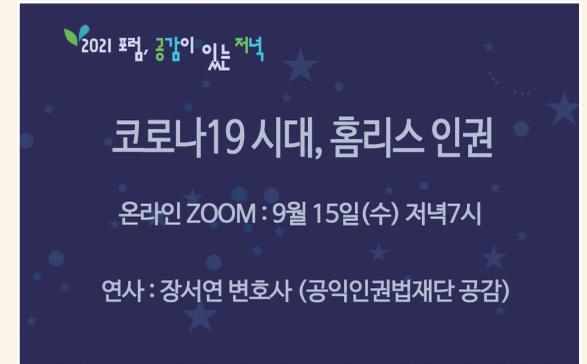
김민선  
 김예림  
 김예진  
 송유림  
 이운형  
 지예림  
 하서영



공감 34기 자원활동가

#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은 다양한 인연으로  
공감과 함께하는 이들과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튜브 라이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공감 포럼을 열었습니다.



## 코로나 19시대, 장애인의 삶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21.03.18.

## 코로나19 시대, 이주민의 삶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21.05.26.

## 코로나19 시대, 홈리스 인권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21.09.15.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제인권이야기

김지림, 박예안,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21.11.17.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행정소송 기자회견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21  
사진으로 보는 공감



새우껍기 고문 인권침해 증언대회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1인시위





'KBS드라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촉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시민대행진

드라마 제작 현장 방송스태프 계약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활동지원사노조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TF 회의 사진

2021  
사진으로 보는 공감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서 접수

세계에이즈의 날·감염인권의 날 기념 기자회견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홀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1  
사진으로 보는 공감



이슬람사원 공사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2021  
사진으로 보는 공감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 시민법정



# 2021 공감 활동



# 20

공감  
활동  
# 01

## 여성 인권

# 2

# 1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 활동
- 2 기숙사 내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해 이주여성노동자와 조력자 지원
- 3 이주여성 폭력 피해 판례 분석

여성  
인권  
☐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 활동

공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개별 사례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관련 법률 자문과 사건 지원을 통해 피해자변호사로서 수사·공판 절차에 참여하고, 피해자와 동행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 지지동반자 제도를 운영 중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인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법규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맡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처벌 근거와 사건 지원의 어려움을 알리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관점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의 피해자 중심적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TF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공백,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사법 절차권 보장, 피해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형사 절차를 조력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이주여성노동자 불법촬영 건(1심 징역 1년 실행, 항소심 집행유예)
- 비공개 촬영회 참가자 비동의 유도 피해 건 (각 1심 가해자 A 징역 1년 실행, 가해자 B 징역 6월 실행)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피해자 대리인단 참여 및 피해자 지원
- 합의 대리, 개명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피해자지원신청 등 지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공동 집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군 전담교관 양성교육, 군법무관, 양성평등전담관 등 대상 교육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자문위원 활동

# 기숙사 내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해 이주여성노동자와 조력자 지원

여성  
인권  
□  
□  
□

충북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F와 G는 농장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취업 첫날 F는 한국인 매니저 김씨가 덥석 잡은 손을 웃어넘겨야 했습니다. F와 G는 농장주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에서 김씨와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김씨가 농장의 주요 업무를 도맡아 농장주와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도 기숙사에서도 김씨는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늦은 시간 큰 소리로 신음소리가 나는 영상을 틀어놓거나, 공동생활 공간인 부엌에서 문제 된 영상을 재생해 보는 등의 행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하루는 늦은 밤 화장실에 다녀오려던 F를 김씨의 방으로 끌고 가려 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F와 G는 농장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농장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G를 불러 F와 함께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로 기숙사를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F와 G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샤워장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자신들이 촬영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법촬영의 범인은 다름 아닌 김씨였습니다.

F와 G는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씨는 불법촬영과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농장주는 피해자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며 농장과 기숙사출입을 막았고 급기야 피해자 F를 조력하는 G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할 곳도 지낼 곳도 잃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관점, 불안정한 체류자격, 사회적 고립 상태 등에서 기인하는데, 특히 주거공간인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동료 한국인이나 사업주에 의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감은 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와 함께 F와 G를 조력하여 김씨와 농장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대리하고 명예훼손 피소 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2021. 4. 5.**  
불법촬영 피해 신고

**2021. 4. 22.**  
피해자 F와 G 상담, 추가 피해 및 농장주 상대 고소 결정

**2021. 5. 20.**  
가해자 김씨(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농장주(성폭력방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각 고소

**2021. 6. 7.**  
고소 건 피해자 F와 G 조사(1차)

**2021. 7. 1.**  
농장주의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피소)으로 피의자 조사(1차)

**2021. 11. 8.**  
농장주의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피소)으로 피의자 대질조사(2차)

**2022. 1. 8.**  
농장주 고소 건으로 피해자 G와 농장주 대질조사(2차)

# 이주여성 폭력 피해 판례 분석

여성  
인권

공감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주관한 서울시 양성평등 사업에 참여하여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사건의 판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주여성 대상 폭력 사건의 주요 유형과 유무죄 판단 근거를 검토하면서 이주여성들의 국내 입국과정과 체류자격의 주요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주여성의 불안한 체류자격이나 경제적 취약함, 사회적 고립상태, 언어적 한계 등을 악용한 범죄와 이들을 외면하는 행정·사법절차 속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여성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 이혼 후 체류자격 심사의 부당함,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업소 등에서 종사하면서 겪는 폭력·상해·성폭력 피해 등 사건에서 적절한 사법 지원(변호사의 조력, 통번역지원, 범죄피해자지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어렵듯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 분석 보고회를 통해 이주여성인권 현장 활동가 및 연구가들과 유의미한 판결들을 공유하고 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향후 보완·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2021. 4. ~ 9.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은혜,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판례 검색 및 분석

## 2021. 10. 12.

폭력피해이주여성 판례 분석 보고회

# 2020

공감  
통행  
# 02

## 장애 인권

- 1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최종 승소(2021누34536)
-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감호,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 3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 4 피한정후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소원(2021헌마1288)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최종 승소

(2021누34536)

신장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버스기사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  
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측은 원고가 신장장애로 인해 버스 운  
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용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  
고는 버스 운전 자격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  
라 회사에서 요구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  
하고, 해고 이후에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  
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  
건 회사가 원고에게 ‘장애인이니까 나가세  
요’ 라고 한 말은 이 법에 위배되는 직접차  
별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측이 주장하  
는 신장장애에 대한 막연한 위험성 및 우려  
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  
되었고, 피고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1. 1. 25. & 2. 5.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 항소장 제출

## 2021. 8. 21.

항소심 제1회 변론 기일

## 2021. 10. 1.

제2회 변론 기일

## 2021. 11. 5.

항소심 판결 선고(피고 항소기각, 원고 승소)

장애  
인권  
☑  
☐  
☐  
☐

#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감호,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장애  
인권  
☐  
☑  
☐  
☐

원고1,은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지적장애  
인 임에도 불구하고 형기의 8배에 달하는  
11년 5개월 동안 치료 감호소에 강제 수용  
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원고2,는 자폐  
성 장애인으로, 역시 치료로 개선될 수 없  
는 유형의 발달장애인임에도 치료감호 처  
분을 받아 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신체·정신적 위험에 놓였습  
니다.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①치료의 필요성과 ②재범의 위  
험성 2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는 지  
능지수나 사회적 성숙도가 비장애인에 비  
해 낮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로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유형의 장애  
입니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국가의 치료감호 처분  
은 장애인 수용자가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해 가중된 고통을 겪게 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하는 차별행위인  
것입니다. 원고들은 법무부(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2,는 임시조치 신청을 통  
해 얼마 전 치료감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  
니다. 이제 본안소송에서 발달장애인에 대  
한 강제구금의 책임소재를 가려낼 차례입  
니다.☑

## 2021. 3. 30.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감호,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및 기자회견

## 2021. 4. 13.

원고2,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 2021. 12. 7.

원고2,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사건 조정권고결정

## 2022. 1. 25.

원고2, 치료감호 종료심사 통과, 감호 해제

## 2022. 3. 9.

본안소송 제2회 변론기일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장애  
인권  
□  
□  
□  
□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 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 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중복수혜를 방지한다는 취지였으나,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서도 복지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등은 장애인복지법 15조의 폐지를 주장하며 정신장애인도 일반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왔고, 공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에서 활동하며 관련 간담회·발표회·토론회 등 참석은 물론 2021년 5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전환점이 될 것인 만큼, 공감은 앞으로도 정신장애인만이 갖는 욕구, 특성을 전제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치료와 지역사회 복지지원, 권익옹호 시스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1. 5.**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21. 6. 28.**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대표발의자 : 인재근 의원)
- 2021. 10. 5.**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출범 및 기자회견
- 2021. 11. 2. & 11. 24.**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 2021. 12. 2.**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한정후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소원

(2021헌마1288)

장애  
인권  
□  
□  
□  
□

청구인은 경계성 지능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정신적 제약으로 사회에서 홀대받는 장애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매진하여 결국 2급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기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개시하게 된 한정후견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이며, 후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단하는 ‘사무처리능력’은 ‘사회복지사 자격’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하여 공감은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사회복지사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인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과연 그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인받고자 합니다.☑

- 2021. 8. 30.**  
사회복지사 자격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기
- 2021. 10. 18.**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소원 제기 및 기자회견
- 2021. 12. 7.**  
이해관계인 보건복지부 답변서 제출
- 2022. 2. 28.**  
청구인 의견서 제출

20

공감  
활동  
# 03

빈곤  
복지

2

1

- 1 홈리스를 위한 정책연구 및 인권지킴이 활동
- 2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 활동

빈곤  
복지  
□

## 홈리스를 위한 정책연구 및 인권지킴이 활동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홈리스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국공립병원들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홈리스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졌고, 서울역 등 공공역사들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거리 노숙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공감은 2021년에도 노숙인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속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홈리스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역 인권지킴이 활동을 지속하면서 노숙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서울역 공익근무요원에게 폭행당한 홈리스 피해자를 지원하고,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경고문 부착을 한 서울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홈리스 인권침해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숙인복지법 등 홈리스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2019. 5. ~**

매주 금요일 서울역 홈리스 인권지킴이 활동

**2021. 2. ~**

홈리스지원체계 연구보고서 공동집필

**2021. 10. 5.**

'노숙인복지법' 제정 10년, 홈리스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2021. 1.**

서울역 공익근무요원 노숙인 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

**2021. 11. 9.**

서울 중구청 노숙인 물품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2022. 1. 18.**

서울역 노숙인 혐오 경고문, 인권위 진정

**2021. 9. 15.**

공감 포럼 "코로나19시대, 홈리스 인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 활동

빈곤  
복지  
□  
□

기초생활 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이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 평가, 자동차 소득환산 등 기초생활 수급권을 제약하는 제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감은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연대활동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득환산 고시'로 인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못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등 개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은 입법부와 행정부 등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로 위 고시가 자의적인 차별이나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아쉽게 패소하였지만, 공감은 고시 개정 활동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활동들을 지속하여 나가겠습니다.☞

2016.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연대활동

2021. 4. 30.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 취소소송 패소

# 2020

공감  
행동  
# 04

## 이주민 인권

- 1 문경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차별 진정
- 2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 3 대구 북구청의 무슬림사원 공사중지명령 사건 대응

# 문경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차별 진정

이주민  
인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 제보자로부터 문경시가 지역의 행정사무소에 발송한 협조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베트남유학생과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과의 만남을 장려하고, 한국남성과 결혼 및 출산 시 제공 받을 수 있는 주거 및 경제적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감은 이 정책이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대상화, 결혼이주여성을 혼인과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공식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감은 해당 정책이 이주여성의 국내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을 담보로 한 것으로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문경시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국제결혼장려정책은 국적, 인종, 성별에 따른 복합적 차별로 폐지되어야 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평가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관계 부처의 전수조사 및 정책 권고 결정을 인권위에 요청하였습니다.☞

**2021. 4.**  
문경시의 협조문 확인

**2021.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기자회견

**2021. 10.**  
진정인 조사

#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이주민  
인권

보호소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 법률지원  
및 보호외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난민신청자인 M씨에 대하여 보복성 짙은 반복적 독방구금과 팔 다리를 각각 묶어 등 뒤로 서로를 연결해 사람의 등을 새우처럼 휘게 만드는 일명 '새우찌기' 고문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한 보호소 독방 CCTV에는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사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공감은 이에 함께하며 법무부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긴급구제 신청, 세계 고문방지기구 공동성명 발표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2월 비로소 일시적으로 보호해제가 되었으나,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처우개선 및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구금 대안 등 앞으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활동을 함께 해야 할 지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2021. 5.**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피해사실 인지

**2021. 8.**  
고문행위 찍힌 CCTV 확보

**2021. 9.**  
보호소 규탄 첫 기자회견 및 고문사건 대책위원회 결성

**2021. 11.**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긴급구제 신청

**2021. 11.**  
법무부 내부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 인정

**2021.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확인 및 피해자 보호해제 결정

**2022. 2.**  
피해자 보호일시해제

# 대구 북구청의 무슬림사원 공사중지명령 사건 대응

종교 및 인종차별적 행정처분에 대한 인권위 진정

이주민  
인권  
□  
□  
□

무슬림 유학생들이 대구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증축 중이던 무슬림사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구 북구청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기한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종적·종교적 혐오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그 관리주체인 대구시와 대구북구청의 방관 하에 유학생들이 평화롭게 가족과 함께 살아가던 동네를 가득 채웠고, 급기야 학생의 집 창문에 내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공감은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1. 9.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원에 대한 공사 재개를 권고하는 의견표명과 함께 혐오성 현수막 및 피켓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원 공사는 재개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공감은 본 사안을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게 진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2021. 2.

피해사실 인지  
현장 방문 및 당사자 면담

## 2021. 6.

공사중지명령 및 혐오성 현수막 방치에 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기자회견

## 2021. 10.

국가인권위원회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의견표명 및 혐오성 현수막 방치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

## 2022 ~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 준비

# 2020

공감  
행동  
# 05

## 취약 노동

- 1 노동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각종 소송 등
- 2 돌봄노동자 지원 활동
- 3 드라마 제작현장스태프 법률 지원

# 노동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각종 소송 등

취약  
노동  
□  
□  
□

연습기간 동안 월급 1원도 받지 못한 뮤지컬 배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작사는 부도를 내고 사라졌고 공연은 몇 회 하지도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뮤지컬 배우는 체불임금도, 정부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일을 한 보도국 작가들도 하루아침에 MBC로부터 쫓겨났습니다. MBC는 단지 계약에 따른 정당한 해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위해 공감은 각종 소송을 벌였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캐디의 유족을 대리하여 가해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보도국 작가들을 대리하여 부당해고를 다투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 2021. 5. ~**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살한 골프장캐디 유족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 2021. 6.**  
직장갑질119 사례로 본 프리랜서 노동 실태 연구 조사 및 발표
- 2021. 6. ~**  
프리랜서 노동권 모임
- 2021. 5. ~ 7.**  
뮤지컬 배우 체당금 불인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
- 2021. 7. ~**  
MBC 보도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참가 및 대리
- 2012. 10. 21. ~**  
뮤지컬 배우 체당금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진행

# 돌봄노동자 지원 활동

취약  
노동  
□  
□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처럼 돌봄노동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특히 돌봄노동을 직업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제도에 속한 노동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건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사회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 역시도 허점이 많습니다. 임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하는 돌봄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공감을 입법, 연구, 소송, 연대 활동 등 다방면에서 돌봄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 2021. 1. ~ 2021. 8.**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대리 및 전부 승소
- 2021. 1. ~ 3.**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미지급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
- 2021. 1.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21. 3.**  
여성노동포럼 '돌봄노동과 여성' 패널 참가
- 2021. 6.**  
사회서비스원법안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 2021. 6. ~ 10.**  
방문요양보호사 불안정 노동실태와 해법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 2021. 9.**  
방문요양보호사 호출 노동 실태와 해법 토론회 발제
- 2021. 12.**  
기사돌봄사회화 공동선언 기자회견

#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 법률 지원

취약  
노동  
□  
□  
□

얼마 전 청주방송에서 14년 넘게 PD로 일을 하다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故 이재학 피디의 2주기가 돌아왔습니다. 故 이재학 피디를 추모하기 위해 기획된 연재 기고, 토론회에 공감도 참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방송 제작 현장은 좀 변했을까?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 68시간, 일일 16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촬영장까지의 왕복 이동시간인 7~8시간까지 더 하면, 하루가 다 가서 최소한의 쉼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드라마 제작 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시정조치까지 내렸지만 스태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계속되어 공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2021년에 KBS 드라마 제작 현장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방송가 비정규직들은 잠이 늘 부족한 현장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근로자가 아니라서 보상도 받지 못하지만 계속 일하려면 현장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와야 합니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현장보다 준수하지 않은 현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드라마는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며,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일상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태프들에게는 일상조차 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픈면 쉼 시간도, 슬픈면 울 시간도, 기쁘면 웃을 시간도 노동에 잠식됩니다.

어떤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인지를 얘기할 때, 그 드라마의 제작 환경이 중요한 기준이 될 때까지, 화면의 빛을 넘어 그 뒤에 사람이 보일 때까지, 공감은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방송가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 2021. 6. 16.

KBS, JTBC 드라마 제작 불법 계약 실태 발표 기자회견

## 2021. 6. 22. ~ 8. 10.

드라마제작현장 스태프 노동법 교육 유튜브 영상 촬영

## 2021. 7. 16.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결성

## 2021. 9. 13.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2021. 9. 16.

KBS 드라마 제작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 2021. 9. 16. ~ 11. 12.

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촉구 1인 시위

## 2021. 11. 10 ~ 12. 13.

방송제작현장의 문제, 오마이뉴스 릴레이 언론 기고

## 2022. 2. 7.

오마이뉴스 故 이재학 피디 2주기 추모 연재 기고

## 2022. 2. 9.

故 이재학 피디 투쟁 이후 방송비정규직의 현실과 과제 토론회

# 2020

공감  
활동  
# 06

## 성소수자

# 2

# 1

- 1 성소수자 차별 사건 대응
- 2 동성 사실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지위 인정 건
- 3 성전환자 법적 성별정정 신청 지원 및 제도 개선 활동

### 성소수자



## 성소수자 차별 사건 대응

공감은 성소수자 차별 사건에서 피해단체를 지원하여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 참고하고 인용할 만한 해외 입법 및 사례 연구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거부 차별사건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심은 위 공단의 대관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체나 활동가 개인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그 결론에서도 잘못되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공감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을 통하여 법무부의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불허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 후에도 공공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불허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차별 사건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면서, 해외 입법이나 사례들은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를 공동 연구하여 '성소수자 난민·이주민의 권리' 파트를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공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로서, 2021년에는 국회 앞 농성장, 차만세 유세단 활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

### 2021. 8. ~ 현재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퀴어여성네트워크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진행 중

### 2021. 11. ~ 현재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설립불허처분 행정심판 청구

-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공동 연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 동성 사실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지위 인정 건

성소수자  
□  
□  
□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며 살아가는 동성커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부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감은 대리인단과 함께 소송을 통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법적 혼인신고를 못하였을 뿐 혼인의 의사, 실질을 갖춘 이성 사실혼 관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 간의 결합은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 이것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일 것입니다. 공감은 공동의 삶을 꾸릴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동성커플도 여느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조례나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가족구성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성소수자 권리 세미나 등 동성커플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전향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1. 2.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행정소송 제기
- 2022. 1. 7.**  
1심 선고, 패소하여 항소 제기
- 2021. 9. 30.**  
가족구성권네트워크 성소수자 동거생활 법률교육 진행
- 2021. 10. 28.**  
가족구성권네트워크 찬란한 유언장 세미나 진행

# 성전환자 법적 성별정정 신청 지원 및 제도 개선 활동

성소수자  
□  
□  
□

생식능력 제거 없는 FTM 성별정정 신청 허가, 현행 지침 인권위 진정

2006년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마련된 사무처리지침(이하 지침)에는 신분증명을 위한 법적 성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을 바꾸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정성별에 해당하는 생식기능력 제거와 전환하려는 반대의 성의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환자에게 법적 성별정정은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권리, 교육받거나 할 때 선택할 기회,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을 옮기고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침 때문에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문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수술을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감은 성전환 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현행 지침의 신체의 자유, 존엄성 침해성을 해외 판례와 입법례를 통해 지적하고 최근 의학적 관점에 따라 성전환수술 요구가 필수적이지 않음을 주장하여 몇몇 사건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 성별 정정이 허가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또 현행 지침을 통한 수술 강제의 문제를 알리고 수술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의 지침의 개정을 위해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2021. 10.**  
생식능력제거하지 않은 성전환 남성(FTM) 성별정정 허가 결정 (항고심)
- 2021. 12.**  
외부성기성형수술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MTF) 성별정정 허가 결정 (1심)  
성별 정정 사건 사무처리 지침(현행 대법원 예규) 상 수술요건 삭제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

공감  
활동  
# 07

공익법  
일반

# 2

# 1

## 1 세월호에서 코로나19까지, 참사피해자 지원활동

공익법  
일반

## 세월호에서 코로나19까지, 참사피해자 지원활동

공감은 2018년부터 참여해 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4.16세월호 참사와 가슴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지원, 재발방지 등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고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집중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피해가족들과 만남, 관련 당국자들과의 협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나눔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인권 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구급시설·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 백신접종 이상반응, 방역조치상 이주민, 홈리스 등 취약계층 차별 등 여러 문제에 지적과 대안 제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인권보호팀과 코로나19를 둘러싼 여러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당국관계자 간담회를 안정화시키고자 노력했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국내외 법제를 연구를 하고, 피해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1. 1.~12.

사참위 전원위원회,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회의 및 관련 활동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회의 및 관련 활동  
대한변협 생명안전특별위원회 회의 및 관련 활동

### 2021. 5. & 11.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수업 & 서울대 국제인권법공개강좌 ‘재난과 인권’ 강의

### 2021. 10.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단계적 일상 회복 공개토론회 토론

### 2021. 11. ~ 12.

대한변협 생명안전특별위원회 코로나19와 인권 TF 회의, 코로나19백신포해가족모임 대표단 연담

### 2021. 12.

한국인권학회 학술대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인권 : 한국과 해외 사례 검토 토론

# 2020

공감  
활동  
# 08

## 국제 인권

# 2

# 1

- 1 2번의 신청과 4번의 판결 끝에 5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다
- 2 코로나19 건강형평성을 위한 국제인권옹호활동
- 3 국경을 넘는 국제인권 논의 및 실천 시스템의 구축

국제  
인권  
□  
□  
□

## 2번의 신청과 4번의 판결 끝에 5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다

D의 동생은 사망 당시 20세를 갓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반정부 시위 도중 D의 눈앞에서 군인들의 총격을 받고 스러졌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용기로 젊은 나이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동생은 사망 후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로 추앙받았습니다. D는 동생의 뜻을 잇고 그의 사망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부가 최종적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도 동생을 살해한 군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의 생일을 기리는 행사 직후 괴한들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그는 수일간 억류된 상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2019. 5. 27.**

난민재신청

**2019. 11. 4.**

난민불인정결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2020. 2. 3.**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제기

**2021. 10. 20.**

원고 승소판결

**2021. 11. 18.**

난민인정결정

다시 풀려났지만 언제든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결국 본국을 탈출하여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난민신청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D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을 거쳐 패소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남을 수도 없었던 D는 제3국으로의 출국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시 공감을 포함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D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공감은 D의 재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신청 결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난민은 역시 불인정이었습니다. 공감은 D를 대리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1.10.20. 서울행정법원은 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2021.11.18. D는 난민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한다는 한 장의 종이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난민신청을 한 지 5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 코로나19 건강형평성을 위한 국제인권옹호활동

국제  
인권  
□  
□  
□

공감은 2021년 전 세계 여러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공평한 코로나19 보건옹호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 지구적인 평등한 백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절차 중 특별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결과로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등 다수의 유엔특별보고관들이 한국을 포함한 G7 및 G20 국가들,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코로나19 백신 생산 제약회사와 그 본국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집단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공감은 또한 이 국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긴급절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은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지식재산권의 한시적 면제를 반대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개별 국가내의 인종차별이 아닌 북반구와 남반구, 서구와 아프리카간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그 내용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 2021. 6. ~ 12.

코로나19 보건옹호 국제네트워크 온라인 회의 10회 이상  
코로나19 보건옹호 국제네트워크 유엔조약기구팀 온라인 회의 10회 이상

## 2021. 10. 1.

코로나19 백신평등권 전략소송 온라인 워크숍

## 2021. 10.

유엔특별보고관 그룹 - G20, 세계무역기구, 제약사 등에 질의 발송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면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긴급절차 진정서 제출

# 국경을 넘는 국제인권 논의 및 실천 시스템의 구축

국제  
인권  
□  
□  
□

공감은 BABSEACLE, TrustLaw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공익인권법/프로보노 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차원의 공익활동, 프로보노 컨퍼런스와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변호사단체인 로아시아(LAWASIA)의 인권대회 준비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단체가 운영하는 아시아 인권변호사네트워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제공익인권법단체 PILnet이 주관한 아시아 최초의 지역 차원의 공익변론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익소송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를 담당하며 1) 법률가들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국제인권법교육을 10여 회에 걸쳐 '국제인권법 아카데미'로 진행하였고, 2) 대한변협-일본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세미나 '국제인권법 적용 일반-이주민 인권-아동 인권-여성 인권'을 기획 주관하였고, 3)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법학회와의 간담회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제안,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 2021. 6. ~ 10.

로아시아(LAWASIA) 인권대회 준비위원장 역할 수행

## 2021. 7.

PILnet 아시아 공익변론 교육 프로그램 공익소송 강의

## 2021. 8. ~ 9.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 공동 주관

## 2021. 9. ~ 11.

대한변협 국제인권법 아카데미 주관

## 2021. 9. & 11.

대한변협-일본변호사협회('일본연') 국제인권법 공동 세미나 주관

## 2021. 9.

대한변협 국제인권특위, 대법원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법학회 간담회 주관

# 2020

공감  
활동  
# 09

## 공익법 교육/중개

# 2

- 1 로스쿨 실무수습
- 2 공익변호사모임 -라운드테이블, 한마당, 잇수다
- 3 공익변호사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활동

공익법  
교육/중개  
☑  
□  
□

## 로스쿨 실무수습

공감은 전국 23개 로스쿨과 협약을 맺고 1년에 2차례의 로스쿨 방학기간 동안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실무수습생들이 공감을 거쳐 공익변호사를 비롯하여 법조계 각 영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각자의 관심영역에 따라 공감의 변호사들과 매칭되어 2주 간 활동하였습니다. 공감의 영역별 활동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공익사건 관련 서면을 작성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법률 리서치를 하며, 실제 법정 방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인권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무수습 역시 비대면 원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의 마음이 가득한 법조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감은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과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1. 2.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2021. 8.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

# 공익변호사모임

## - 라운드테이블, 한마당, 잇수다

공익법  
교육/증개  
□  
□  
□

공감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체계화·활성화하고 예비법조인에게 변호사의 공익활동 및 전업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공익변호사 모임’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입 공익변호사를 소개하고, 공익변호사 저마다의 근황을 공유하는 ‘공변 잇수다’와 실무상 입법운동 노하우를 나누기 위한 ‘공익입법 매뉴얼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기 돌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공변 한마당’을 통해 교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의 공익변호사 활성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 2021. 3. 30. & 9. 30.**  
상하반기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 2021. 4. 29.**  
공변 잇수다 온라인 행사 진행
- 2021. 6. 16.**  
공익입법 매뉴얼 교육
- 2021. 12. 1.**  
공변 한마당 행사 진행

# 공익변호사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활동

공익법  
교육/증개  
□  
□  
□

공감은 국내 최초의 비영리, 전업적 공익변호사그룹으로 공익변호사들이 좀 더 많이 양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4년부터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으로 매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은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익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선정하고 2년간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공익변호사에게 멘토링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5명의 공익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고 2021년말 현재 3명의 변호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7기로 지원을 받기 시작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나동환 변호사, 전남·광주 지역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김민아 변호사에 이어 2021년에는 장애인법연구회 정다혜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공익변호사 생태계의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0. 5. ~**  
7기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민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자립지원
- 2021. 1.**  
8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 2021. 4.**  
8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면접 전형 및 선발
- 2021. 5.**  
8기 정다혜 변호사(장애인법연구회) 자립지원

## 공감이 걸어온 길

20  
04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활동 시작  
제1회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 시작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20  
05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장애아동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20  
06

성인종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버마 출신 민주화 활동가의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한국장애인인권 수상, 제20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20  
07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공청회 발제 등 입법 활동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 수여 감사패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수여 감사패 수상

20  
08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의 항명죄에 대한 변론 무죄 선고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  
09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  
지역주민의 반발로 노숙인 쉼터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용산 화재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20  
10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애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 소송 승소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20  
11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이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법조연론인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  
12

알바 청소년·요양 보호사의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입법활동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법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 활동

20  
13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인권 감시 실태 조사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  
14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기획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아산 사회복지재단 '아산상-재능나눔부분' 수상

20  
15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20  
16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 위헌제정 신청 - 헌법불합치 결정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장애청소년 경찰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20  
17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승소(1심)  
삼표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법제 개선

20  
18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친족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고소대리 사건 항소심 가해자 유죄판결

20  
19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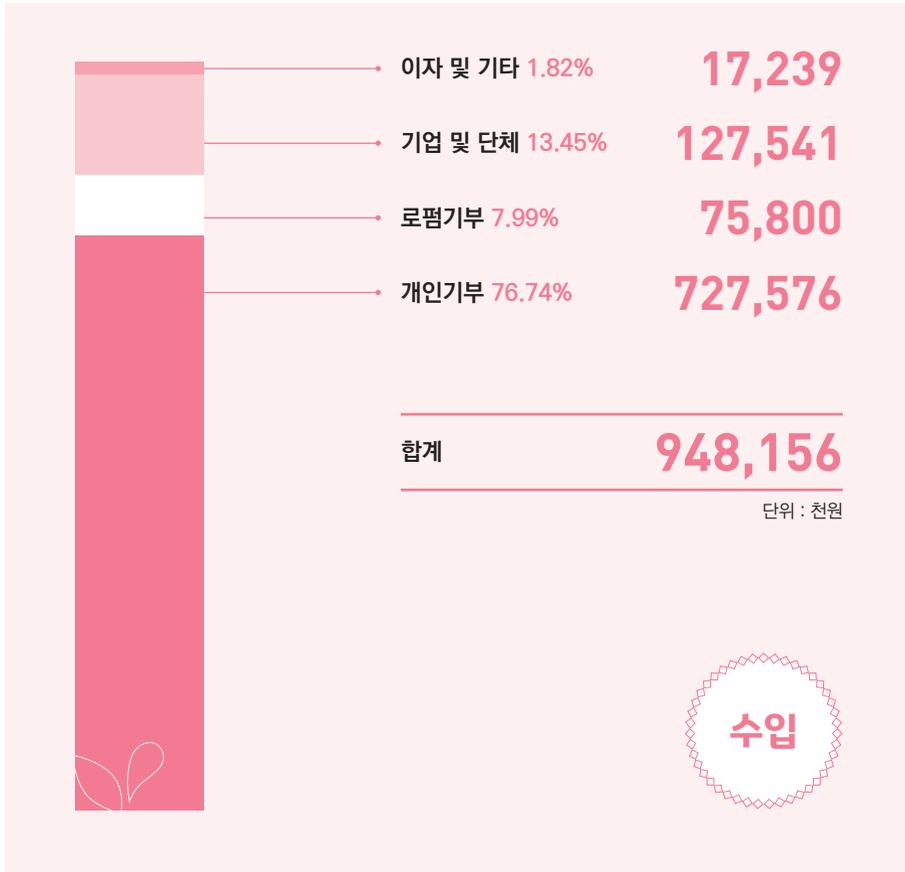
20  
20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故최인기님 사건 항소심 승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코로나19 대응 - 장애, 취약노동, 이주민, 빈곤과 복지, 재난 - 법률지원 활동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법률 지원

20  
21

신장장애인 부당하고 행정소송 최종 승소  
트랜스젠더 생식능력 제거수술 없이 성별정정 첫 허가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 공감 살림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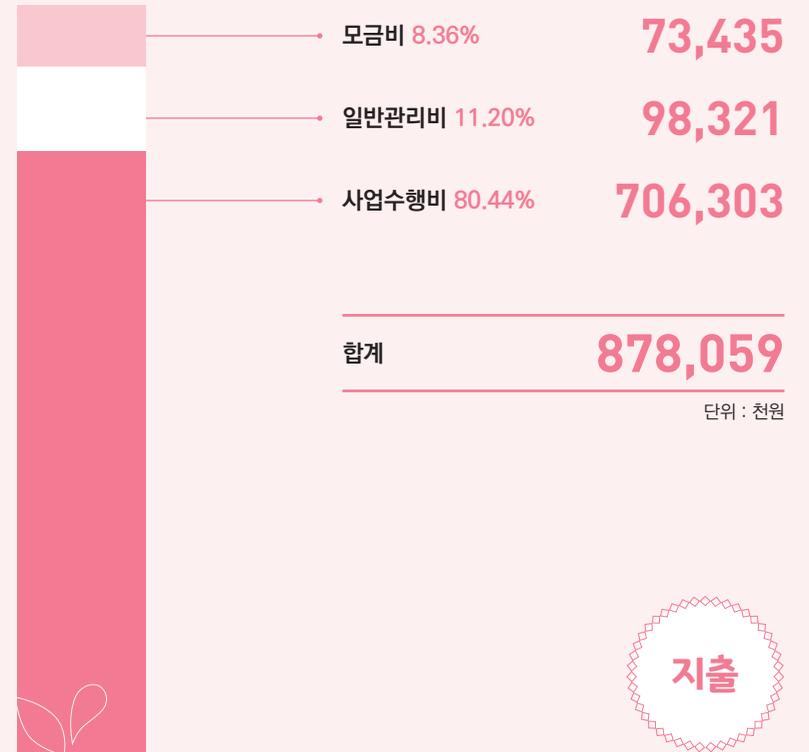


♥ 수입 항목에서 '이자 및 기타'수입은 무엇인가요?

예금이자와 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감 변호사의 활동 = 공감의 사업'입니다. 공감은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수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을 위한 인건비는 공감 고유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모금비		사업수행비	
인건비	41,280	인건비	525,408
사회보험료	3,386	사회보험료	46,472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10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237
시설관리비	1,462	시설관리비	13,996
도서인쇄비/소모품비	14,464	공익변호사자립지원사업비	96,000
기타	12,833	법률교육비	295
<b>소계</b>	<b>73,435</b>	법률지원비	2,548
일반관리비		소송지원비	
인건비	79,488	교육중개비	2,654
사회보험료	5,507	연구조사비	4,746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2,802	인권법캠프비	751
시설관리비	2,099	포럼비	190
홍보비	4,713	도서인쇄비/소모품비	752
도서인쇄비/소모품비	979	기타	420
기타	2,733	<b>소계</b>	<b>706,303</b>
<b>소계</b>	<b>98,321</b>		

# 2021 공감 목소리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그 어떤 수치심도 없이 응당한 분노를 느끼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데, 왜 유독 성폭행 피해자는 되려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걸까요? 고개를 꼭 숙여야만 '진짜 피해자'이지,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하고 일상을 사는 사람은 '진짜 피해자'가 아닐 것이라는 '피해자다움'의 편견이 비좁습니다.

## 표현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박예안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강은희  
변호사

'위드 코로나'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의 완화이어서는 안 되고, 고용, 돌봄, 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대변화를 핵심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유가족, 확진자, 격리자 등 코로나19의 1차적인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넘어

미국 코로나19 의료 형평성 대책 위원회  
최종권고 초안을 보며

누구나 자기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엄한 일터,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화가 누군가를 소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눈을 부릅 뜨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도, 지치지도 않도록 차갑고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구성원 강은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째, 우리는 장애인 차별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법 제정 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 법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 진정이 폭증하였습니다. 반면, 법은 있지만 법에 위배되는 주장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가 여전히, 차별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받더라도 반감지 않은 예외적 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 차별유감

조미연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불안정한 지위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현실을 현장에서 절절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난민 이슈는 말을 꺼내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이슈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조차 조심스럽게 만드는 한국의 상황이 안타깝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아쉽다. 각 국의 역량만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너무 인색하고 소극적이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보며

# 2021 공감 목소리

차별은 악독한 얼굴만 갖지 않는다. 부당대우나 배제와 같은 직접차별뿐 아니라 고정관념과 편견 확대, 혐오 표현, 괴롭힘 등까지 무엇이 왜 차별인지 묻고 차별에 대해 이리저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다.

##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세련된 얼굴의 차별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임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채 임금 포기 확인서, 부제소합의서를 쓰게 되는 노동자들, 무엇보다 지금도 부제소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이번 판결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진정인들이 채식을 실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윤리적으로 사육되는 공장식 축산업과 동물 착취에 대한 거부, 전 세계 축산업으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신념과 양심에 따른 실천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채식주의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채식을 요구할 권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신념에 따른 채식, 학교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백소윤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주거권은 노동자의 국적이나 피부색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굴욕적인 주거조건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의 이주노동자 주거상황을 고발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법원에 발을 들이기까지의 그와 그녀의 삶, 성별정정 허가 이후의 그와 그녀의 삶에 멀리서 말고 가까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요건을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왜 이런 요건을 다 구비하여야 하는 거지 싶은 의문들이 들 법도 한데, 판단을 “내리는” 법원은 너무 멀리 앉아있다.

### 그/그녀의 삶 가까이

현재 HIV 감염인을 규율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 감염인을 예방의 대상과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차별과 격리배제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감염 순간부터 치료 기회의 제약, 직장생활의 배제 등 장시간에 걸쳐 차별과 편견·낙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포함시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HIV 감염인을 보호할 국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켜달라는 것입니다.

###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김지림  
변호사

백소윤  
변호사

연형국  
변호사

# 함께하는 사람들

## 기부회원

가정준 강건우 강경두 강경희 강관우 강규영 강균하 강기목 강기영 강기욱 강기탁 강기현 강나현  
 강동환 강두한 강명원 강문혁 강미리 강미선 강민영 강민우 강민정 강방권 강봉수 강서영 강서영  
 강선화 강성대 강성원 강성일 강세라 강세희 강수정 강수희 강순이 강승연 강신섭 강신영 강신숙  
 강연성 강영규 강영준 강용현 강우석 강윤아 강윤창 강윤리 강은계 강은영 강은옥 강재상  
 강정숙 강정애 강정옥 강정은 강준모 강지아 강지영 강지용 강태성 강태승 강태호  
 강현규 강현정 강현철 강환이 강효리 강희철 고건덕 고경란 고나무 고동선 고동희 고병원 조현지  
 고성필 고성민 고세훈 고연금 고영란 고원용 고원형 고은아 고재민 고진욱 고찬욱 고태호 고학수  
 고한나 고희경 공두현 공민석 공윤선 광경란 광경민 광노길 광동국 광서윤 광성자 광시은 광예람  
 광우섭 광원석 광은비 광인찬 광현설 구금희 구나영 구다훈 구영운 구영호 구인호 구지은 구지혁  
 구현주 구혜진 국주영은 권경업 권기현 권기호 권대현 권명보 권명진 권미영 권배주 권보미 권석현  
 권세복 권은국 권오곤 권오진 권은성 권은기 권원종 권은정 권이선 권 일 권 일  
 권순호 권준용 권준희 권지윤 권지희 권미선 권철웅 권태섭 권태윤 권태형 권혁주 권현준 권현준  
 권혜원 권혜은 권혜진 권효신 금영은 금현아 길은수 김가연 김경림 김경림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아 김경연 김경연 김경옥 김경준 김경진 김경태 김계봉 김관철 김광길 김광래 김광배 김광호  
 김광숙 김광영 김광욱 김광호 김교신 김구열 김권희 김권희 김규미 김규식 김기남 김기덕 김기영  
 김기현 김나경 김나라 김나연 김나원 김남연 김남국 김남일 김남희 김다애 김다영 김다훤 김대심  
 김대중 김덕여 김도원 김도신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도희 김동건 김동관 김동연 김동욱 김동을  
 김동한 김동현 김동휘 김두식 김라경 김락현 김래니 김 린 김명수 김명숙 김명원 김명준 김명희  
 김명호 김명희 김목홍 김미경 김미선 김미소 김미연 김미영 김미정 김미희 김미희  
 김민관 김민국 김민석 김민성 김민아 김민영 김민욱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철  
 김민철 김범준 김범진 김병국 김병수 김병오 김병욱 김병호 김보연 김보영 김복기 김봉진 김사랑  
 김상률 김상미 김상민 김상열 김상은 김상준 김상준 김상현 김서연 김서현 김석현 김선기 김선자  
 김선진 김선희 김성경 김성수 김성은 김성태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호 김성훈 김성희  
 김세영 김세정 김세진 김세현 김소연 김소영 김솔아 김솔지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용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희 김수희 김수희 김수희 김수희 김수희 김수희  
 김순정 김순주 김순아 김순진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김시내 김시은 김이를 김이영 김애진  
 김양희 김연석 김연수 김연정 김연주 김연지 김영경 김영덕 김영란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욱 김영욱 김영은 김영조 김영진 김영진 김영현 김영희 김예린 김예영 김예원 김옥희 김완모  
 김용득 김용비 김용우 김용진 김용철 김우빈 김우연 김우중 김용영 김원규 김원배 김원영  
 김원철 김유립 김유성 김유성 김유진 김윤경 김윤선 김윤아 김윤정 김윤주 김윤진 김윤희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진 김은혜 김이랑 김이석 김이슬 김이현 김인석 김인숙 김인택  
 김지봉 김재관 김재민 김재성 김재원 김재원 김재춘 김재춘 김재원 김재환 김재훈 김정근 김정근  
 김정민 김정민 김정순 김정아 김정연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학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정희 김조현 김종록 김종민 김종보 김중서 김중순 김중욱 김중일  
 김준철 김종하 김중현 김중현 김중희 김좌진 김주동 김주미 김주영 김주욱 김준석 김준연 김준영  
 김준우 김준태 김지선 김지수 김지아 김지양 김지영 김지완 김지원 김지인 김지향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효 김지훈 김지훈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옥  
 김진우 김진이 김찬호 김창호 김창호 김창환 김창환 김재린 김재환 김철민 김춘수 김충진 김태성  
 김태양 김태연 김태욱 김태현 김태현 김태희 김태희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해정 김해정 김해주 김현경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수  
 김현이 김현자 김현정 김현진 김현해 김형권 김형동 김형로 김형연 김형욱 김현우 김해란

김혜련 김혜림 김혜선 김혜숙 김혜순 김혜영 김혜인 김혜희 김호성 김호중 김호철 김흥국 김홍율  
 김화량 김화령 김화영 김환생 김회연 김효국 김효권 김효민 김효숙 김효영 김효준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훈식 김희경 김희경 김희수 김희수 김희정 김희주 나대현 나승철 나은식  
 나진아 남경호 남광열 남궁연심 남기연 남기철 남병영 남승한 남연진 남유정 남윤미 남정원 남지수  
 남찬섭 노경현 노경희 노귀선 노병권 노성철 노성현 노수현 노승희 노연희 노영재 노영주 노창호  
 노현웅 노혜련 노희선 노희정 도재형 라홍석 류경은 류다솔 류 란 류영희 류민희 류선호 류시환  
 류연철 류영재 류원호 류정선 류정아 류재성 류준세 류현진 류현철 류혜정 류호성 류희원 마 고  
 마라나다 마 순 맹남주 명종진 명한석 모광희 목영준 문경순 문경순 문자석 문자은 문호승 문호민 문홍안 민경홍  
 문세진 문연진 문영선 문영화 문유민 문 용 문준영 문자석 문자은 문호승 문호민 문홍안 민경홍  
 민동섭 민선영 민예은 민유나 민창욱 민한기 민혜수 민혜정 박가현 박갑주 박경배 박경서 박경신  
 박경용 박경운 박경웅 박경주 박경준 박경철 박귀천 박규도 박규정 박 근 박금주 박기례 박기영  
 박기출 박기현 박나래 박노민 박노수 박다운 박대협 박동숙 박명희 박미애 박미희 박민욱 박병규  
 박병조 박병준 박병한 박봉일 박상배 박상용 박상옥 박상운 박상진 박상희 박서진 박서진  
 박서현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성구 박성욱 박성희 박세웅 박세준 박세진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승이 박승이 박수민 박수연 박수진 박수찬 박수현 박숙미 박순덕  
 박순주 박시우 박시환 박신애 박신애 박아룡 박인수 박인호 박연덕 박영덕 박영수  
 박영숙 박영희 박예안 박예지 박용대 박용식 박용찬 박원중 박유리 박윤근 박윤숙 박윤정 박은경  
 박은경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주 박은주 박은하 박은혜 박이정 박인석 박인희 박일환  
 박재우 박재홍 박재희 박정교 박정영 박정민 박정숙 박정신 박정욱 박정원 박정은 박정현 박정현  
 박정훈 박종록 박종문 박종욱 박종혁 박종환 박종훈 박주민 박주언 박주원 박주화 박주희 박준기  
 박준석 박준원 박지선 박지영 박지현 박지호 박지환 박지훈 박진동 박진석 박진원 박진호 박진호  
 박찬우 박철완 박철준 박필아 박필아 반예원 반예원 반재용 반경희 박희은 방승빈 배대용 배도준  
 배호근 박호황 박호숙 박호진 반이연 반예원 반재용 반경희 박희은 방승빈 배대용 배도준  
 배상희 배상영 배영근 배영희 배원석 배유미 배은희 배정호 배지영 배진수 배재영 배현아 배혜선  
 백경미 백나라 백도라지 백 민 백번석 백성진 백성현 백소연 백소영 백소희 백우영 백인욱 백일하  
 백준근 백준수 백지애 백진영 범주환 변수양 변영선 변영주 변자영 변종석 변진호 변혜연 부지환  
 서강석 서강일 서기호 서동운 서미숙 서미애 서민경 서범욱 서상범 서상원 서석우 서선영 서순아  
 서승훈 서승미 서승욱 서아인 서영국 서영지 서유진 서은영 서은혜 서재길 서정희 서지애 서지은  
 서진환 서창호 서재환 서한성 서해정 서현진 서희석 서호성 서희우 서희원 석근배 석우아정 선재원  
 선정규 설은수 설갑은 설계숙 설기옥 설기현 설성모 설성현 설영학 설정호 설준우 설진 선진  
 성창근 성창익 성하은 소라미 소민호 소순우 소영민 소윤민 소지민 손도희 손영호 손민아  
 손봉기 손성근 손승현 손아람 손정유 손총모 손필숙 손학렬 송경근 송다습 송동현 송명숙 송명훈  
 송미지 송민경 송민수 송보영 송상고 송상윤 송수경 송시현 송이람 송영훈 송오섭 송용원 송윤원  
 송인혁 송정근 송주연 송주희 송준현 송지우 송지현 송지현 송찬섭 송창영 송창희 송치영 송태협  
 송하경 송해구 송현정 신가영 신건호 신경숙 신경숙 신고운 신국식 신 권 신대연 신대희 신동석  
 신동수 신동화 신명근 신미경 신병주 신상은 신선경 신성식 신성호 신소현 신수경 신수경 신승미 신승훈  
 신아영 신아영 신원기 신유림 신유재 신윤진 신은숙 신은진 신정림 신종근 신주영 신주영 신진화  
 신창용 신현준 신혜경 신혜성 신혜영 신혜원 신화경 신훈민 심광택 심나리 심석태 심성우 심수미  
 심재철 심재원 심지연 심지영 심형보 심희정 안경환 안기순 안다연 안만혁 안명주 안미경 안병국  
 안병학 안상균 안상영 안상일 안선주 안성수 안성식 안소연 안수균 안순선 안승택 안영진 안영철  
 안영춘 안영환 안오성 안유진 안은지 안정원 안주영 안지혜 안진걸 안진우 안현진 안혜령 안혜림  
 안혜정 안희광 안희철 양가을 양서현 양선미 양선우 양승미 양영모 양영화 양옥수 양유미 양윤주  
 양은희 양인수 양정숙 양준희 양지훈 양지은 양지은 양지은 양지은 양지은 양지은 양지은 양지은 양지은  
 양형철 양홍섭 양홍진  
 오석제 오성심 오성열 오세정 오수정 오승민 오신영 오연희 오영신 오영아 오예지 오유미 오유빈  
 오은정 오은지 오은철 오이석 오인수 오재민 오재욱 오중환 오홍진 오현우 오형석 오재희 양미양  
 원지희 원성진 우경주 우동형 우 람 우은주 원명진 원민경 원유호 위아래 위은진 위금녀 유덕기  
 유동철 유동훈 유록수 유선애 유선영 유선애 유선희 유승룡 유승민 유시화 유연실 유영기 유영민  
 유영일 유영훈 유영덕 유 욱 유 원 유원규 유원정 유인선 유재광 유재원 유재철 유정령 유정인

# 함께하는 사람들

## 기부회원

유정화 유정훈 유지현 유지호 유지선 유채빈 유혜정 유화정 유효영 옥태소 유규상 윤기열 윤나라  
 윤덕로 윤영순 윤미영 윤민화 윤병우 윤보름 윤석준 윤석희 윤선목 윤선주 윤성수 윤성운 윤성철  
 윤세종 윤소정 윤승희 윤신승 윤영미 윤영순 윤용섭 윤용호 윤원근 윤유선 윤은정 윤자영 윤재실  
 윤재훈 윤정숙 윤정연 윤정원 윤정향 윤지훈 윤진수 윤진호 윤해림 윤현우 윤 형 윤해숙  
 윤혜영 윤호성 윤홍식 은준근 은탁 은현호 이가연 이가혁 이가현 이강군 이강원 이경미 이경민  
 이경아 이경울 이경재 이경준 이경희 이계성 이계수 이계연 이 구 이권열 이규범 이금화 이기선  
 이기연 이기화 이길재 이나래 이다영 이다혜 이달별 이대근 이동근 이동연 이동주 이동혁 이두진  
 이명재 이문규 이문이 이문희 이미란 이미숙 이미지 이미현 이민순 이민영 이민용 이민재 이민재  
 이민주 이범주 이병권 이병래 이병민 이 별 이보람 이보완 이보윤 이복현 이분영 이봉재 이봉준  
 이봉현 이산희 이상국 이상민 이상봉 이상석 이상석 이상수 이상아 이상연 이상원 이상중 이상필  
 이상화 이상희 이상희 이상준 이서진 이석우 이선기 이선민 이선수 이선아 이선영 이선웅 이선임  
 이선희 이선엽 이선원 이선은 이성은 이성재 이성진 이성호 이성희 이세라 이세리 이세미 이세미  
 이세영 이세영 이소담 이소아 이소연 이소영 이소운 이소희 이 승 이승준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숙현 이순혁 이슬비 이슬아 이승수 이승용 이승우 이승욱 이승원  
 이승원 이승철 이승한 이승한 이승현 이승현 이승훈 이심가는 이아람 이안소영 이에린 이여름 이연경  
 이연순 이연정 이연창 이영근 이영래 이영옥 이영주 이영주 이영호 이에지 이에한 이에현 이에화  
 이용세 이용우 이용표 이용승 이용진 이용환 이육범 이원규 이원재 이유영 이유준 이유진 이유철  
 이윤구 이윤정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일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은희 이인국 이인복 이인숙 이인호 이인화 이일 이장호 이재명 이재성  
 이재승 이재승 이재욱 이재찬 이재한 이재형 이재훈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복 이정애 이정연  
 이정은 이정이 이정인 이정진 이정호 이정환 이정환 이재철 이재호 이종록 이종린 이종미 이종수  
 이종식 이종희 이주경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창 이주한 이주형 이준범 이준석 이준석 이준수  
 이준일 이준환 이지나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행 이지혜 이지혜 이진권 이진만 이진숙  
 이진숙 이진웅 이진우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창국 이창석 이창수 이창형 이창훈 이창희 이채식  
 이채원 이채원 이채현 이철기 이철주 이총희 이춘재 이탄희 이태정 이태호 이태훈 이하정 이하정  
 이한본 이한솔 이해옥 이해원 이항임 이항재 이현주 이혁재 이현미 이현숙 이현숙 이현중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형근 이형근 이형미 이형식 이형자 이형주 이형준 이형직 이혜리  
 이해영 이해영 이해은 이해욱 이해원 이해윤 이해정 이해진 이해진 이 호 이호식 이호원 이호인  
 이호재 이호정 이호중 이호철 이호철 이화영 이화영 이화정 이화준 이황희 이효건 이효경 이효정  
 이희희 이희경 이희경 이희만 이희선 이희섭 이희순 이희승 이희승 이희정 이희정 이희찬 이희현  
 임귀숙 임규원 임기화 임남규 임대빈 임대우 임대원 임봉수 임상욱 임상원 임선영 임선주 임성룡  
 임성순 임세와 임수경 임수진 임수희 임영미 임영호 임예지 임원범 임은영 임익현 임자운 임재만  
 임재성 임정호 임정하 임진연 임진홍 임정현 임재윤 임동일 임재욱 임재욱 장경옥 장낙원 장낙원  
 장달리 장도중 장명경 장미희 장민주 장민환 장병호 장보람 장석우 장선영 장성연 장세영 장세현  
 장순실 장승희 장영석 장예림 장옥희 장 원 장원택 장유식 장윤경 장윤석 장윤정 장윤주 장윤주  
 장윤호 장은경 장은영 장은주 장일남 장재영 장정환 장주희 장지숙 장철익 장 품 장현진 장혜민  
 장효정 장 훈 장희경 장희국 전경태 전덕규 전명호 전민성 전민식 전병규 전상윤 전선희 전성관  
 전성지 전수안 전영록 전영주 전용범 전용정 전원진 전은경 전은배 전재우 전정현 전지성 전찬서  
 전창률 전화승 전효숙 정기주 정경민 정계현 정고은 정광연 정광민 정광현 정구진 정규빈 정규현  
 정낙식 정남순 정다혜 정다훈 정대성 정대일 정대영 정명준 정명희 정미나 정미나 정미현  
 정미화 정만영 정병민 정병삼 정병수 정서영 정서희 정석중 정선영 정선열 정성순 정성용 정성호

정성훈 정성훈 정세진 정소망 정소연 정소연 정소연 정수미 정순문 정순형 정승혜 정아름 정아선  
 정아윤 정연선 정연옥 정연주 정영선 정영선 정영훈 정용승 정용운 정욱도 정원락 정원진 정윤선  
 정운수 정은령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이명화 정인영 정인영 정인홍 정일용 정재건 정재욱 정재욱  
 정재필 정재현 정재현 정정국 정정숙 정정진 정정화 정정환 정정훈 정재훈 정종호 정주형 정준학  
 정지연 정지웅 정지하 정지훈 정 진 정진규 정진화 정철 정춘석 정해수 정행주 정형모 정혜련  
 정혜영 정혜진 정호진 정홍조 정화숙 정환엽 정희경 정희정 조근희 조경주 조광희 조기연 조남혜  
 조대연 조덕현 조동완 조동용 조문순 조문숙 조미희 조범식 조석필 조선영 조성준 조세현 조수진  
 조숙현 조순옥 조아라 조연희 조영관 조영관 조영현 조 옥 조원희 조우경 조은서 조은진 조익섭 조장천  
 조우수 조우하 조우람 조우영 조우현 조 옥 조원희 조우경 조은서 조은진 조익섭 조장천  
 조재령 조재영 조정은 조정현 조정현 조주영 조준호 조하영 조한결 조한진 조해린 조현미 조현복  
 조현재 조현주 조형순 조혜련 조혜인 조혜주 조혜진 조홍택 조호민 조홍식 주기영 주선영 주선하  
 주숙희 주신영 주영삼 주영진 주지원 주형진 지 박 지선경 지성호 진근태 진다희 진양숙 진양화  
 진채영 진형혜 차강진 차규근 차미령 차민형 차선주 차승주 차승호 차영욱 차용선 차정희 차지훈  
 차태연 차현미 차혜령 채성희 채양희 채윤경 채정석 채태아 채희석 천경숙 천만우 천명규 천정훈  
 최가영 최강욱 최강원 최 결 최경숙 최경자 최경호 최계영 최광미 최광훈 최규진 최 근 최기림  
 최기선 최길일 최단용 최달호 최대훈 최도영 최문석 최문순 최미영 최민경 최민규 최민규  
 최민형 최병규 최병선 최병엽 최보라 최상미 최서연 최서연 최서희 최선주 최성규 최성보 최성일  
 최세현 최소연 최승철 최아람 최영규 최영호 최영희 최 용 최용범 최용직 최용혁 최용호 최은성  
 최원근 최원호 최유 최유남 최유리 최유진 최윤경 최윤수 최윤정 최윤혁 최윤희 최은배 최은숙  
 최은주 최의실 최인선 최인혁 최재신 최재홍 최정규 최정식 최정아 최정우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임 최정환 최중선 최중환 최준규 최준근 최준석 최준우 최준혁 최지경 최지선 최지영 최지은  
 최지연 최지희 최진영 최진영 최진숙 최창석 최창호 최철기 최희정 최은정 추혜애 추혜은 표슬비  
 최현진 최형석 최홍성 최홍정 최홍재 최희정 최희정 추은정 추혜애 추혜은 표슬비  
 하나영 하성우 하양진 하인숙 하주희 하준영 하지석 하진경 하혜빈 하희봉 한경수 한광현 한국영  
 한금섭 한기영 한대일 한명득 한미미 한민용 한병준 한보경 한상만 한상미 한상희 한성민 한수경  
 한 숙 한승석 한승표 한연규 한영동 한영주 한예솔 한유걸 한은희 한이경 한재준 한재호 한중호  
 한지수 한지연 한창건 한창권 한창남 한창완 한창훈 한철웅 한태윤 한학수 한희숙 한효성 한효은  
 함동호 함영선 함지혜 하나눔 허누리 허세진 허수희 허오영숙 허인희 허 정 허정집 허지림 허태정  
 현다연 현지원 현지현 현두호 호문혁 호순진 호성호 호수현 호수진 호승희 호이현 호여진 호영대  
 홍성수 홍성진 홍수정 홍수희 홍순영 홍순진 홍승호 홍승혜 홍이현 호여진 호영대 호영대  
 홍원표 홍윤선 홍은기 홍정자 홍지수 홍지은 홍진영 홍혜선 황기해 황규인 황태화 황미정  
 황보인규 황선주 황성현 황승욱 황신애 황연재 황예람 황용기 황원규 황은경 황의홍 황인이 황재호  
 황정윤 황준협 황지현 황지현 황진도 황재주 황 현 황현이 황현일 황현정 황혜신 황혜진 황오연  
 Hyun-Soo Lim Joomi Kim Eunice Kyonghee Patricia Goedde

(주)공달학원 / (주)미래에너지 / (주)사이로직 / (주)센타날테크놀로지 / (주)스페이스2.0 / (주)아레테투자 / (주)이레테스트  
 HP Inc. / SK염창주유소 / 동봉양말협동조합 / 성균관한의원 / 세탁전문정형기 / 에이치앤엠에스앤모리츠 주식회사  
 에이캐드 / 에코네트웍(주) / 퀴드자산운용(주) / 태동정보통신 / 톰발리 주식회사 / 호영가 마스타  
 경실련피해자지지도임 / 고려대생활도서관 /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 사단법인 한결 /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 / 인기법연구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활동지원사지부 /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 한국난독증협회 / (재)생심수도회  
 (재)화우공익재단 /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 UNHCR / 법률사무소서연 / 법무법인 덕수 / 법무법인 백재  
 법무법인 세연 / 법무법인 재상 / 법무법인 한누리 / 법무법인(유한) 광장 / 법무법인(유한) 지평 / 법무법인.LKB & Partners  
 법무법인 송인 / 법조공익모임 나무 / 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 변호사 조운석 법률사무소

##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  
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권이다.

김이수  
이사장



꽃샘추위가 와도 공감이 있어 따뜻합니다.

변영선  
감사



또다시 새롭게 공감합니다.

문영화  
이사



공감 덕분에  
정리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빗 워터스  
이사



공감을 우리 함께 공감해요!

신경숙  
이사



공감  
나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해주는 친구들...

변연식  
이사



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공감

한상희  
이사



共感者 天下之大本

윤재운  
이사



어려울 때 달려와 주는 공감이 있다는 건  
그 어떤 보람보다 즐겁하다.

오종석  
감사



이 사회에 라절을 희망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감이 있어 행복합니다.  
공감 파이팅!

김영준  
이사



공감이 있어서 우리 모두 행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김유니스  
이사



공감이 세상을 바꿉니다.

존리  
이사



##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장서연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버텨낼 수 있었던 시간들.  
함께해 줘서 감사합니다.



안주영

인간은 인간이라는 자격 하나로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박열



윤지영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김지림

뚝뚝히 그리고 같이 걸어갑니다.



김지혜

현장의 소리에 기초하여,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찰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예안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공감의 있습니다.



강은희

사계절을 돌아와 다시 시작. 이번에는 한 발짝 더 용기내서.



박영아

봄처럼 돌아오는



임기화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주변의 좋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조미연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빛나는 공감의 힘,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황필규

사람 '결'에 이르러 하는 이들이 있기에  
조금은 살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있기에 우리도 변하고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결'에 있는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



백소연

먼저 고민하고, 시도해 온 사람들이  
내어준 길에 대한 감사가 고맙다는 말은  
덕없이 부족한 한해였습니다.  
덕분에 험난한 곳에  
또 길을 낼 공리를 한다고 소식 전합니다.  
나란히 걸을 그대를 그 때를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신옥미

## 공감 나눔밥상

### 참 고맙습니다

매번 기부회원님과 함께하는 행사는 공감을 두근두근 뛰게 합니다.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두 번의 나눔밥상은 그렇게 공감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2021년 7월, 공감에 처음 기부를 시작한 기부회원님과의 나눔밥상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감을 만나 공감을 처음 만난 분들, 공감 일파만파를 통해 함께해 주신 분들, 친구를 통해 공감 기부회원이 된 분들.. 다양각색의 사연으로 공감과 인연을 맺어주신 분들께 공감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12월의 나눔밥상은 든든한 응원군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에 이어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부회원님, 큰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오랜 기부회원님, 2021년에 새로 공감에 기부회원이 되어주신 기부회원님들과 만나 큰 응원을 받은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의 기대보다 더 기대하게 되고, 끝나면 늘 아쉬움이 많이 남는 두 번의 공감 나눔밥상은 공감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감이 기부회원님께 전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직접 전하게 될 날을 이렇게 또 기대해 봅니다.

기부회원님, 고맙습니다.



## 유튜브채널소개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혼밥 하다가, 잠이 안 와 뒤척이는 밤. 짧은 음악도 좋지만 공감 유튜브 영상 한편은 어떠세요? 재미나지만 가볍지만은 않게, 조금 더 가까이, 공감 활동을 알리려 유튜브 채널을 꾸렸습니다. 2019년부터 차곡차곡 영상을 만들어 채워 왔어요. 사건을 진행한 구성원과 당사자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 볼 수 있는 공감 통톡,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들을 구성원들의 메서드 연기와 연출로 재치 있게 풀어 본 뮤직비디오, 기부회원을 모시려는 공감 홍보cf까지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팀은 더 많은 인권 활동, 공감 소식, 함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구성원들과 함께 뽀시락 뽀시락 음모를 꾸밈니다. 앞으로도 재미진 영상으로 찾아갈게요.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미 당신도 공감 유튜브팀! 기다릴게요~



222  
000

www.kpil.org

222  
012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홈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발행일

2022년 3월

### 발행인

김이수

###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1 연간보고서

###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후원하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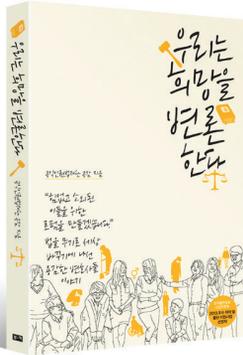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  
신청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 가능)  
이메일 : gonggam@gmail.com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 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2013년 12월 9일 발간 / 280쪽 / 14,000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안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mailto:gonggam@gmail.com)

홈페이지 [www.kpil.org](http://www.kpil.org)